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다시 읽는 여성 작가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강지윤 역사화된 삶과 젠더적 삶: 환상의 파열 지점으로서의 젠더

— 한무숙 소설을 읽는 하나의 관점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배상미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목차

- 1 들어가며
- 2 빈곤을 넘어서려는 욕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불화
- 3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일방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들
- 4 결론

이 논문은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AKS-2016-OLU-2250003).

이 논문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R. W.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디스 버틀러의 ‘연합적 정치’ 개념을 사용하였다.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은 미군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상징하는 남한사회에서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이 남성성과 불화하는 사람들을 재현한다. 각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인물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이 남성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들의 욕망은 연합적 정치를 구성할만하다. 이를 통해 최정희의 소설이 냉전 체제 하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을 재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최정희, 헤게모니적 남성성, 연합적 정치, 해방기, 미군, 냉전

1 들어가며

최정희(1906~1990)는 1931년 10월 『삼천리』에서 단편 「정당한 스파이」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이후, 1980년 「화투기」를 『현대문학』 8월호에 발표하기까지 약 50년 동안 44편의 소설과 320편의 평론 및 산문 등을 발표하고, 17권의 단독 저서를 출판하는 등¹ 다방면에서 저술활동을 이어온 대표적인 한국의 여성작가이다. 최정희의 작품은 식민지시기부터 해방기, 독재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굴곡들을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들은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지맥」, 「인맥」, 「천맥」, 혹은 식민 말기에 창작된 ‘친일’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돌이켜보면, 최정희는 그녀와 유사한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한 김동인, 정비석, 염상섭, 황순원 등과 같은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1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253-269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부터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창작된 최정희의 몇몇 장편소설들을 연구한 성과들이 생산되고 있고,² 이 시기에 발표된 최정희의 신문 연재소설이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등, 최정희 문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³ 최정희의 작품 활동 기간과 그녀가 문단에서 차지했던 위상에 비해 그녀의 소설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미 김복순이 언급했던 것처럼 최정희가 당시 문단 혹은 정권의 주류적 분위기에 따라 자주 정치적 입장과 문학적 소재를 바꾸었다는 것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정희가 활동한 이력은 그녀가 연구의 대상이 될 만큼 확고한 문학세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편견을 낳을 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정희는 한국 문단에서 창작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문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시기부터 독재 정권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문단의 변천사를 파악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작가이다. 또한 최정희를 통해 그동안 한국문학사가 어떤 서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되는 와중에 어떠한 경향의 텍스트들이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배제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사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을 식민지시기와 한국전쟁 이후의 소설들과의 관계 안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정희 소설이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한국문학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방기의 최정희 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그리고 최정희의 소설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논의하

-
- 2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유경, 「잔해(殘骸)의 목격: 최정희의 「人間史」론」, 『구보학보』 제20호, 구보학회, 2018, 423-450쪽; 오태영,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 최정희의 『끝없는 浪漫』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5권 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27-360쪽; 이선미, 「1950-60년대 소설의 ‘미국’ 재현양상과 담론화 과정 연구: 미국수용과 한국자유주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배달말』 제61호, 배달말학회, 2017, 359-396쪽; 허운,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8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109-136쪽; 김복순, 「전향자의 역사 다시쓰기」,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25-256쪽 등.
- 3 최정희, 이병순 편, 『페스마스크의 悲劇, 그와 그들의 戀人: 1950년대 최정희 신문연재소설』, 푸른사상, 2018.
- 4 김복순, 앞의 책, 8쪽.

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한국현대사에서 ‘해방기’라고 부르는 기간은 통일적이지 않다. ‘해방기’로 불리는 기간의 시작은 모두 1945년 해방 이후이지만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은 1948년 남북 단독 정부 수립 이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혹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등 다양하다. 이 논문은 ‘해방기’를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전쟁 이전까지 최정희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지만, 전쟁 기간 동안 최정희는 목적성이 뚜렷한 중군 작가단에 참여하여⁵ 소설을 창작하기 때문에, 두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정희의 소설은 여성이 주동인물이거나, 혹은 여성의 시각에서 쓰인 소설들이 많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해방기 소설에는 남성이 화자로 등장하거나 남성의 시선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들이 다수 눈에 띈다. 이는 최정희가 식민지시기에 창작한 소설들과 상당히 다른 점이다. 최정희는 「내가 묘사한 남성」에서 식민지시기에 창작한 작품인 「지맥」을 논하면서, “나는 이때까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해 왔”지만, 그녀가 해방기에 간행한 단행본 『풍류 잡히는 마을』에서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 왔다”⁶고 한다. 그렇다면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은 ‘남성’을 인간 일반으로 상정하는 남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택한 것인가?

최정희의 해방기 문학은 이미 몇몇 연구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이들 논의들은 주로 소위 해방기 농촌 3부작으로도 불리는 「점례」, 「풍류 잡히는 마을」, 「우물 치는 풍경」을 중심으로, 해방기의 최정희 소설의 배경이 농촌으로 옮겨가면서 당시 농민들의 빈곤과 계급격차를 비판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⁷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연구들로는 김복순과 이민영이 있다. 김복순은 이 소설들이 농민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정책을 주도하는 미군정을 비판

5 중군 작가단은 1951년 3월 9일에 문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방부 정훈감실의 지원이 결합되어 결성되었다. 최정희는 중군 작가단에서 ‘창공구락부’로 불린 공군 중군문인단에서 활동하였다.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어문학』 제101호, 한국어문학회, 2008, 333-334쪽)

6 최정희, 「내가 묘사한 남성」, 『조선일보』, 1950.2.23.

적으로 재현하므로 그녀의 소설을 반미소설의 계보에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민영은 「풍류 잡히는 마을」을 안희남의 「불」과 비교하여 두 소설이 식민지배 이후 본격화된 국민국가 설립 프로젝트 안에 포섭되지 못한 수난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었다고 분석하였다.⁹ 이러한 논의들은 해방기 최정희 소설이 식민지시기에 창작된 그녀의 소설과 비교했을 때 소재의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젠더는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R. W. 코넬은 그의 저서 『남성성/들』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는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자신들을,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를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를 잡게 된 남성성이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젠더 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을 연구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20세기 초반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파시즘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기에는 군사 전문지식이 경제 발전과 병치되면서 이 둘을 지배하는 것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모든 젠더질서를 장악하면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남성 지배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세력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발현 양상이 서구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서구 지역의 문화적 특징들, 그리고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서구 내외부의 젠더질서들이 상호작용하

-
- 7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1-150쪽; 김정숙,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과 『녹색의 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변화」, 『비평문학』 제3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71-92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34-163쪽. 이들 연구들과 달리 소설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해방기 전후에 최정희가 쓴, 혹은 다른 필자들이 최정희에 대해 쓴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정희의 작품 세계 변모를 ‘모성 담론’이라는 키워드로 연구한 공임순(「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학회』 제46호, 한국여성문학회, 2019, 7-37쪽)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 8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최정희의 「풍류 잡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310-344쪽.
- 9 이민영, 「해방기 소설과 수난의 서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5호, 한국현대문학회, 2015, 123-151쪽.

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단일성에 도전하고 의문을 던져왔기 때문이다. 코넬은 이러한 지점들에 주목하면서 서구가 식민주의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필요한 자격들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구성해왔지만, 모든 지역의 남성성이 동일하지만은 않았음을 강조한다.¹⁰

해방기는 냉전 구도가 막 형성되던 무렵이었으므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소련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패권 국가로 부상하던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하던 시기였다. 해방기의 남한을 주로 소설의 무대로 삼은 최정희의 소설에서도 미군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한다. 반면, 기득권이 될 물질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가부장권을 유지하려는 남성들 혹은 기득권 세력에게 영합하면서 이권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코넬이 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포섭되지 못한 ‘식민지적 남성성’ 혹은 ‘주변화된 남성성’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정희의 소설에서는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불화하거나 이 남성성에 저항하려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최정희의 말처럼 “남자 여자”와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 안에서는 유사점을 찾기 어렵다.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최정희 소설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사람들을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한 페미니즘적 연합적 정치(coalitional politics)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버틀러는 일단 만들어진 정체성은 “실재적 상태가 되고 그것을 만든 구체적인 실천들에 의존하여 사라져”서 “더 이상 정치적 문제나 주제를 구성할 수 없다”¹¹고 보았다. 그녀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면서도 페미니즘 정치를 위해 단일한 ‘여성’들의 연대를 추구하기보다, ‘여성’을 완성될 수 없는 개념으로 본다. 그녀는 기존의 질서와는 다르고 페미니즘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지점에서 만나는 이들과의 형성하는 느슨한 ‘연합(coalition)’을 추구한다. 이것은 그녀의 책에서 ‘연합적 정치’로 명명된다.

버틀러의 ‘연합적 정치’는 남성 서술자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최정희의

10 R. W. Connell, *Masculinities*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185-203.

11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Second edition), Routledge, 1999, pp.20-22.

해방기 소설을 식민지시기와는 다르게 ‘남성화’되었다거나 혹은 여성보다 정치가 더 부각되었다는 판단을 넘어서, 그녀의 소설의 젠더를 본격적으로 분석할만한 방법론으로 적합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정희 소설에서 초점이 되는 ‘남성’들 중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기생하지 않는 이들은 저항적인 여성인물들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공유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성격은 젠더이분법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이제까지 연구들이 이들의 젠더를 분석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각각의 소설에 나타난 이들의 실천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대결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질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버틀러가 말한 ‘연합적 정치’의 행위자들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버틀러의 ‘연합적 정치’ 개념으로 소설 안에 재현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구성하는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합적 정치’ 개념은 최정희 소설이 이성애적 이분법적 구도에 갇히지 않고 젠더를 재현하는 방식을 밝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최정희가 “해방 후의 내 작품 세계가 달라졌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하나 소재가 달라졌을 뿐이지 작품 세계는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¹²라고 언급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빈곤을 넘어서려는 욕망과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불화

최정희는 자본과 군사력, 그리고 냉전 체제를 주도하는 패권국가로서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남한 사회를 움직이는 실세인 미군을 해방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하는 세력으로 그린다. 그리고 소설의 배경이 되는 농촌 마을의 지주 세력은 미군과 결탁하여 유사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행사한다. 「풍류 잡히는 마을」은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택하는 이 소설은 서술자의 출신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해방 이후 미군정이 헤게모니를 획득해나가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마을 남성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마을의 대지주인 서흥수와 결탁하지 않고도 빈곤하

12 최정희, 「뒷말 몇마디」,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221쪽.

지 않고, 농민들이 그에게 비굴한 표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남성 중산층 지식인으로 추정된다. 이 소설은 화자의 시각에서 그가 지주 서홍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를 서술한다. 화자의 시선을 통해 이 소설은 해방 이후에 식민지시기 기득권이었던 지주 서홍수가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을 그린다. 과거 서홍수가 식민권력과 결탁하여 정치 및 군사적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을에서 경제적인 이익 및 정치적인 이득을 누렸다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헤게모니 하에서 더 이상 토지 독점으로 농촌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농촌에서의 권력을 어느 정도만 유지한 채 해방된 남한에서 기득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이 소설은 해방 직후 헤게모니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국민학교 마당에선 날마다 밤마다 청년들 여자들까지 나와서 연설을 하는지, 삼천리 이 땅에서 나오는 금은보화며 기름진 옥토에서 걷우는 오곡백화며 삼면을 주욱 돌리운 바다에서 잡히는 만 가지 생어며 이 모든 것을 어느 누구 다른 나라 놔온 하나 못 건드리고 모두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도 남는다는 소리는 더 굉장하지 않느냐.¹³

해방기 농촌에서 “청년들 여자들까지 나와서 연설을” 하는 상황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방 후의 정부는 인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서술자가 해방기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군으로 “청년들 여자들”을 호명한 것에서, 당시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했던 지주와 식민권력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고 나아가 이 남성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 및 청년들만이 아니라 나이든 남성 농민들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받아왔지만, 이들은 이 권력에 순응하고 협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서술자는 이들을 “노예생활에서 받은 근성”¹⁴을 지니고, “늘 비굴한 웃음을 부자연하게”¹⁵ 짓는 사람들이라고

13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16쪽.

14 위의 책, 18쪽.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배하는 혹은 배제하는 자들의 향방을 이 남성성에 저항하는 자들과 순응하는 자들로 나누는 이분법을 승인한 것인가?

이 소설은 서홍수의 회갑 잔치가 진행되던 중, 목수 영감의 아들이 서홍수의 회갑 상을 부숴버려서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 서술자가 의미부여를 하면서 종결된다. 목수 영감의 아들은 평소에 지주의 농민 착취에 비판적이던 인물이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마을사람들은 “목수 영감의 아들이 넘어지지 말기를 바라는 얼굴”¹⁶로 그 아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이렇듯 서술자는 농민들을 당장은 지주 앞에서 무기력하더라도 저항의식을 내포하는 존재들로 재현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목수 영감의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말없이 거저 행동만 하였다고 하였다. 열 마디의 말보다 한 개의 참된 것 스무 마디 서른 마디 백 마디의 말보다 오직 하나의 진실된 행동은 세상의 온갖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

마을의 풍류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진정 배고픈 자 하나 없고 헐벗은 자 하나 없고, 병들어 약 쓰지 못하는 자 하나 없고 우매한 자 하나 없이 모두 배불리 먹고 뛰어 보지 않으려느냐. 모두 좋은 옷 입고 노래 부르지 않으려느냐.¹⁷

위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말없이 행동만 한 목수 아들을 치하한다. 실상 이 마을에는 목수 아들 외에도 서술자를 비롯하여 철용 아버지와 같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순응적인 농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마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히 철용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미군정 치하의 사회변화와 지주가 농민들을 통제하는 현상을 비판하지만, “나발”이라

15 위의 책, 23쪽.

16 위의 책, 47쪽.

17 위의 책, 48-49쪽.

는 그의 별명이 보여주듯이 그의 주장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었다. ‘나’ 역시 속으로만 농민들과 사회를 비판할 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지 못한다. 이들과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는 목수 아들은 말만 내세우거나 생각만 하는 두 사람과 달리, 직접 실천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다.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에서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대척점에 서 있는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행동’의 주체는 주로 여성들인데, 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녀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 ‘행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점례」는 작가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점례라는 한 여성 빈농이 죽게 된 경위와, 이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그린다. 점례는 그녀가 기르던 닭이 허승구의 밭에 들어갔다 가 허승구가 그것을 잡아 장대에 매달고 닭의 주인을 색출하려고 하자, 몰래 닭을 빼내오려다가 허승구가 던진 돌에 맞아 큰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사망한다. 허승구가 점례에게 돌을 던진 이유는 해방 이후 미군정이 농촌의 농민과 지주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한 “삼분병작” 제도로 인해 예전보다 재산 축적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씩 토지의 생산물을 나눠 갖던 기존의 방식을 지주가 생산물의 1/3을, 농민들이 2/3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꿔놓았다. 사실상 이 제도는 지주의 토지 권한을 치명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첫째는 지주 중심의 토지소유제를 부정하지 않았고, 둘째는 기존의 토지관리 및 농경과정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모두 농민이 부담했기 때문이다.¹⁸

미군정의 정책은 지주들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이 소설에서 미군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은 농민이 아니라 지주이다. 허승구의 아들은 미군정청에서 일하고, 허승구 딸의 결혼식에 미국 사람이 참석할 만큼 허승구는 미국인들과 친밀하다. 미군정의 정책은 허승구의 계급적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는 해방 이후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하는 미군정

18 이혜숙, 「미 군정기 일본인 재산의 처리와 농업 정책」, 『사회와 역사』 제2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0, 310-313쪽.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응하고자 한다.¹⁹ 이러한 허승구의 모습은 허승구의 소작인들과 대조된다. 소작인들은 이전보다 더 강해진 그들의 권리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허승구와의 소작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점례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이들은 점례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을 닭 귀신의 탓으로 돌릴 뿐, 그녀가 사망한 궁극적인 원인을 탐색하거나 허승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소설의 표제이자 지주의 횡포로 사망한 피해자인 점례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주의 방침을 거스른 인물이기도 하다. 허승구는 자신의 울타리에 닭들이 들어와 농작물을 망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에게 닭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다른 마을사람들과는 다르게 점례는 그의 명령 이후에도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길러낸다. 이 소설은 점례를 저항적인 인물로 재현하지는 않지만, 점례는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지주의 명령을 거스른다.

달이 낮처럼 밝은 데서 구름같이 하얀 점례의 닭이 께매어 달린지 사흘째 되어 마지막 비명을 “끼이옥 끼이옥” 가늘게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점례는 달이 낮처럼 밝은데서 달이 낮처럼 밝기 때문에 구름같이 하얀 닭의 모양이 너무 잘 보이고 또 그 비명이 달이 밝아 처참하기 때문에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아직 안 잠긴 허승구네 쪽 대문을 살그머니 밀고 들어가 울타리 말뚝에 찬찬 엮어 맨 작대기를 끌러 내리고 닭을 끌어서 가슴에 안고 아욱과 상추와 도마도와 시금치 받을 함부로 밟으며 허둥지둥 쪽대문끼로 나오려는 때에 어떤 놈이냐는 소리와 함께 이마에 부딪치는 것이 있었다. 점례는 아찔했으나 전혀 모르고 거

19 허승구가 자신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판매하는 것 역시 미군정이 들어온 이후 변화하는 사회질서에 적극적으로 동화해나가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지주들은 미군정이 남한 내 식량부족과 빈곤해결 및 물가안정을 위해 실시한 식량공출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협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김재훈, 「해방 후 양곡유통체계의 재편」, 『사회경제평론』 제26호, 한국사회경제학회, 39-78쪽, 2006, 46-54쪽) 자본의 축적이 토지를 통해서 이전만큼 용이치 않다는 것을 자각한 당대 기득권의 상당수는 자본가로 변신했고, 허승구 역시 이러한 대열에 서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저 달리기만 하였다. 집에 와서 안았던 닭을 내려놓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²⁰

인용문의 닭은 점례가 그녀의 예비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혼수를 마련할 방도로서 받은 것이다. 점례는 이 닭을 자신의 혼수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일원으로 길러낸다. 그 닭을 포기할 수 없던 점례는 한밤중에 허승구의 집에 잠입하여 닭을 구출한 것이다. 허승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건 만으로도 이 마을 사람들이 허승구의 말에 모두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지주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다. 이 도전은 점례의 닭에 대한 애정이 허승구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소설은 농민들이 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의 위계를 “몇 백년을 지주의 노예로서만 살아내려오는 사이에 지어진 처량한 습성이요 슬픈 전통”²¹으로 운명화하는 등, 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습성과 전통은 점례의 욕망에 따른 ‘실천’을 가로막지 못했다. 점례의 행동은 마을에서 이미 관습화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스르고, 기존의 위계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물 치는 풍경」에서도 ‘행동’의 주체는 여성들이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지주는 아니지만 부유한 지식인 남성이다. 이 서술자는 마을의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빈곤 및 성욕 불만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대조하여 농촌의 비참함을 더욱 강조한다. 소설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우물 고사를 지내는 날이다. 우물 고사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의 안녕을 비는 행사이므로, 마을사람들이 생활의 필수재인 물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서로의 연대감을 복돋을 만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이 마을의 두 가구 사이에서 큰 갈등이 벌어진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학수 어머니와 몽분 어머니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몽분을 사모하는 학수가 몽분에게 온갖 음식과 봉선화 씨앗 등을 가져다주면서 시작된다. 학수 어머니는 가족들의 굶주림은 생각하지 않는 학수에게 분한 감정을 감추

20 최정희, 「점례」,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72쪽.

21 위의 책, 63-64쪽.

지 못하고 그를 구타하며 몽분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 이에 화가 난 몽분의 어머니가 그녀의 앞에 나타나자, 학수 어머니가 몽분 어머니를 구타하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몽분 어머니가 지주인 최 주사로부터 학수 어머니가 경작하던 토지를 구매한 것이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드러난다. 최 주사는 미군이 토지제도를 바꿔놓자, 땅을 팔아 공장 등을 지어 빠르게 사업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한다. 결과적으로 두 여성들의 갈등은 해방기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 토지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지주 수의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설에서 소작인들의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하는데 반해, 남성들은 태평하다. 고령집 영감과 순보 영감은 두 여성들의 몸싸움을 보고, “이거 야단났군. 동네에 변괴가 생길 장본이야……. 어서 물을— 물을 퍼내자. 물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아낙네들이 저리 성악스럽구서야 동네가 무사할 수 있담…….”²²이라고 반응할 뿐, 이 두 여성의 싸움을 말리거나 싸움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싸움의 원인은 두 가정의 생계문제만이 아니라, 해방기의 남한 사회의 토지제도 변화로 인한 농민과 지주의 관계,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의 전환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두 남성은 이 싸움의 사회적 의미는 무시한 채, 두 여성들의 싸움이 마을의 변괴를 야기할 가능성만을 우려한다.

이 소설에서 사회변화가 야기하는 빈곤의 심화와 생계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이 문제에 무관심한 배경에는 가부장제를 뒷받침할 수 없는 마을의 물질적 조건이 있다. 이 동네의 빈곤이 심화됨에 따라 “딸 가진 자는 한 식구래도 줄이고자 치울 데를 물색하지만 아들 가진 자는 당장 급한데 한 식구 더 늘린다는 일이 무섭”²³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학수 어머니와 몽분 어머니의 싸움으로 돌아가 보자. 두 사람이 각자 가족의 생계문제가 원인이 되어 싸우고 있을 때, 두 사람의 남편들이 등장하지 않았듯이 이 소설에서 남성들은 가족들의 생계부양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학수 역시 집안의 ‘아들’이지만, 호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머니 및

22 최정희, 「우물 치는 풍경」,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129쪽.

23 위의 책, 121-122쪽.

식솔들의 걱정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연애에 골몰한다. 학수만이 아니다. 이 소설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은 같은 또래의 여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성욕을 감추지 못한다.

건들건들 노래 가락을 부르는 자도 있습니다. 장원집 병어리는 무엇이 어떻다고 연신 “어버버” “어버버” 녀 없는 웃음을 합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다가 돌부리에 발을 채우곤 합니다. 몽분이 연순이 숙이 흥순이 갑이 등 뒤에 선 처녀들을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각들도 짬을 타서 뒷눈질을 합니다. 총각 축에는 흥식이 봉수 꼬맹이 덕군이 석윤이 복길이 등 여럿입니다.²⁴

총각 축들은 도야지 물이에 눈을 팔면서도 색시들 보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구만요.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구는 것 같구만요.²⁵

위 인용문의 남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누리던 헤게모니적 남성성인 가부장권을 지키겠다는 욕망이나, 마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다못해 자신들이 성욕을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울 방도에만 골몰한다. 이 소설에서 오직 기혼여성들만 자신과 가족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관심을 보이며, 이 삶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행동한다. 여성들은 비록 해방기의 질서가 기득권과 미군정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의 부당한 상황에 분노하고 생계문제의 시급성을 자각하며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세 소설은 해방기에 신문과 잡지 등에서 발표되어 1949년에 아문각에서 간행한 단행본 『풍류 잡히는 마을』에 수록되었다. 이들 소설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영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을 그리고,

24 위의 책, 98쪽.

25 위의 책, 138쪽.

나아가 후자의 행동들에 주목한다. 후자의 인물들은 지배 질서에 맞서서 당장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결심하거나 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이 공유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반감과, 이 남성성의 방식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세계에 대한 지향은 이들이 잠재적으로 연합적 정치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서론에서 언급한 “해방 후의 내 작품 세계가 달라졌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하나 소재가 달라졌을 뿐이지 작품 세계는 전이나 후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²⁶라는 최정희의 말을 다시 상기해보자. 당대의 혹은 후대의 평론가들이나 연구자들은 최정희의 식민지시기 소설들은 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젠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해방기 소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최정희의 식민지시기 소설은 당시 미디어의 조롱과 희화화의 주요 대상이기도 했던 신여성들을 주동인물로 다루었다. 신여성들은 식민지시기 헤게모니적 남성성이었던 식민권력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자 식민지적 남성성을 내면화한 조선 남성들이 가정과 ‘같은 민족’ 안에서 행사하는 가부장권에 의한 억압의 대상이었다. 최정희의 식민지시기 소설은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여성들의 실천, 혹은 이러한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들의 욕망을 그렸다. 결국 최정희는 식민지시기와 해방기 모두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저항하는 소설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풍류 잡히는 마을』을 간행한 이후에 발표되었던 소설들에서도 드러난다.

3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일방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들

최정희는 단행본 『풍류 잡히는 마을』을 출간한 이후와 한국전쟁 발발 이전 사이에 몇 편의 작품을 더 발표한다. 이 단행본에 게재된 소설들이 대부분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의 배경은 도시, 혹은 학교와 같은 근대적 공간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소설의 배경과 인물 유형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정희의 장편소설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아기별」(『국도신문』, 1949.9.4.-12.)과 「봄」(『문예』, 1950.1)은 각각

26 최정희, 「뒷말 몇마디」,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221쪽.

1949년과 1950년에 출간된 작품이다. 「아기별」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윤수의 시각으로 남한 정부의 성립 초기에 여성들이 생계부양자가 되면서 가정 내의 가부장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그린다. 이 소설이 창작된 시기는 이미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들어선 이후이지만, 미군이 일본인들과 일본 자본이 남긴 적산을 불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설적 배경은 정부 수립 이전으로 보인다. 이 소설의 갈등은 가정의 생계부양자인 윤수의 어머니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가정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성서비스를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윤수의 아버지는 윤수의 어머니가 미군을 상대로 성을 판매하도록 독려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들 앞에서 그녀를 ‘양갈보’라고 비하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 걸 씹는 게 아니야. 학생들은 그런 걸 안 씹어. 넌 크다란 게 그것 두 몰라. 그건 잡년 잡놈들이나 씹는 거야…….”하고 말했다. 아버지 말이 끊이자마자 어머니가 “그 몰상식한 소리 좀 말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죄다 잡년 잡놈이게? 흥.”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서양 사람은 씹어두 괜찮을지 몰라도 조선 사람은 그것만 씹음 바람이 나”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아이구, 썩 잘 아는구만…… 흥.”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양갈보 만침이야 안다구…….”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화가 너무 나서 벌떡 일어나 경대 위에 놓인 크립통이며 분막통을 함부로 집어 던지며,

“서양놈하구 친해라 친해라 할 쟈 언제구……. 적산불하를 받아라 받아라 할 쟈 언제야…….”²⁷

위 인용문은 윤배가 어머니가 준 껌에 때료되어 아버지에게도 껌을 권하자, 아버지가 윤수에게 훈계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비하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27 최정희, 「아기별」, 구명숙·이병순·김진희·엄미옥 편,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2, 역락, 2011, 546쪽.

어머니의 다툼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머니에게 미군과 가깝게 지내라고 독려한 사람은 아버지이다. 인용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아버지는 미군정이 주도하는 적산불하에 욕심을 내고 어머니를 이용하여 미군정의 적산 관계자들과 친분을 맺어, 적산을 용이하게 불하받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정은 식민지시기에 그 건물을 관리했거나 그 건물의 임차인이던 사람들처럼 어떤 식으로든 적산과 연고가 있던 사람들에게 그 건물을 불하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적산을 탐냈던 것으로 보아, 그는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막무가내로 혹은 요행으로 생활 방도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 인용문은 미군을 상대하는 산업에 종사하던 남한 거주민들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노동을 비하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지주들이 땅을 팔기 시작하고, 아직 미군에 의해 남한 사람들에게 배분되지 않은 농토나 공장 등의 적산들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의 소작농이나 빈민 계층들은 경작지나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해방기 남한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엄청난 빈곤 인구조로 인해 굉장히 혼란했다. 1945년 7월과 9월을 비교해보면 통화량은 절반 이상으로 뛰었지만, 1946년 전체 인구 중 고용률은 38%에 불과하였으며, 1947년에는 미군의 구호물자를 받는 구호자가 750만 명에 달했다.²⁹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던 해방기 남한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정치 및 군사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은 미군이었고, 미군이 고객이거나 미군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빈곤의 굴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소설의 생계부양자인 어머니는 가족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본업이던 유치원 교사직을 그만두고 미군들을 상대로 한 성산업에 뛰어들었을 것이다.³⁰ 빈곤과 실업이 창궐하던 남한의 상황 속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은 적지 않았지만, 당

28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60-61쪽.

29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제6권 1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76-77쪽.

시 이들은 상당히 강력한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이 낙인은 미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한 ‘남성’들의 가부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배 종식 이후, 한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미군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한국’ 남성들은 새로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적응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부장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인용문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군들이 가져온 음식인 ‘김’을 한국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음식으로 묘사하자 이에 반발한다. 어머니의 직업은 미군을 고객으로 삼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문화에 반감을 보이고 수용을 거부하려는 태도는 그녀의 존재에 대한 반감 및 거부와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군에게 성서비스를 팔면서 남한 남성들의 가부장적 통제를 벗어나있는 어머니와 같은 성노동자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협력하는가?

윤수와 윤배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강한 애착은 은유적으로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반응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수의 아버지 세대는 미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가정의 가부장적 권력을 지켜내려고 애쓰지만, 윤수 세대들은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권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구축한 남한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결탁할 필요가 있는지는 않은가?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윤수가 어머니에게 보이는 양가적인 감정이다. 윤수는 미군에게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어머니의 직업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한다. 여기서 이 ‘올바르지’ 못함의 핵심은 어머니가 미군에게 성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서 분석한 최정희의 다른 소설들에 나타난 미군과 지주들의 결탁을 떠올릴 수 있다. 이들도 미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윤수의 어머니와 유사하지만, 윤수의 어머니와 달리 남한 사람들에게 의해 배제되기는커녕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아기별」이 남긴 의문들을 「봄」과 한국전쟁 이후 최정희가 창작한 장편소

30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관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55쪽.

설들과 겹쳐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봄」은 외부의 질서와는 단절된 여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여학생들 간의 연애감정과 성폭력, 질투를 다룬다. 이 안에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정(戀情)은 가부장적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과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소설은 여성들의 공동체에도 학생들 간의 나이와 학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하고, 심지어 여성들 사이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재현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애감정과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그림으로서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소설의 결말은 여성들의 친밀한 관계가 이성애주의 앞에서 무력한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 이 소설의 결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문을 닫쳐 버려요.”

심미가 이렇게 말했으나 차순은 듣는지 마는지 응대가 없었다. 그래서 심미가 쳐다본즉 차순은 남학생들과 마주 서서 얼굴 조화라도 부리는 모양이었다. 심미는 차순의 뒷모습에서 그것을 읽어 알 수가 있었다.

강렬한 광선을 자꾸만 드레 빼쳤다.

“문을 닫치래두 그래…….”

“…….”

“들었어? 닫쳐 버려요…….”

“으응? 그래?”

그제사 대꾸를 하는 것이나, 차순은 대꾸만 할 뿐 아직 거기 서 있었다. 심미는 갑자기 꼴이 치밀었다. 강렬한 광선에 피곤을 느낀 탓도 있었지만 차순이 그렇게 하고 서 있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이다.³¹

그날 밤 심미는 아무도 동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밤이면 적적하다고 열어 놓던 사감 방과의 사이의 미닫이도 닫쳐 췌으면 했다. 아무도

31 최정희, 「봄」, 구명숙·이병순·김진희·엄미옥 편,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2, 역락, 2011, 564-565쪽.

없고 거저 호젓한 속에서 이마가 넓고 어깨가 떡 벌어진 남학생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싶었다. (...) 다른 학생은 다 웃는데 이마가 넓고 어깨가 떡 벌어진 학생은 웃지 않고 덤덤하던 것이 더 못 견디게 그리웠다.³²

첫 번째 인용문의 심미는 그녀와 연인처럼 가까이 지내던 차순이 남학생들과 거울장난에 열중하면서 성적 긴장감을 즐기는 것을 보고 질투한다. 흥미롭게도 심미와 차순 모두 학교 내에서 다른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몇몇 여학생들과 성적으로 접촉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로 서로를 질투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여학생들의 연애편계를 그리는 것 같지만 남성이 질투심을 촉발하는 매개가 되므로, 퀴어적인 친밀감은 결국 이성애로 귀결된다는 서사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결말을 근거로 이 소설을 연인관계이던 두 여성이 각자 다른 남성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성애자로 성장해나가는 서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심미가 차순에게 관심을 보인 계기를 살펴보자. 이 소설은 심미의 시선에서, 심미의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미는 차순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조선식 고옥으로 지어진 구사가 아닌 최근에 지어진 양옥 신사라는 이유로 그녀에게 매력을 느낀다. 심미는 “신사에 사는 학생들은 모두 멋지고 싱싱해 보이는 대신 구사에 있는 학생들은 어쩐지 느린하니 생기가 없는 것 같”³³다고 본다. 심미는 건물 양식에 따라,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그녀의 취향을 드러낸다. 차순과 심미의 친분은 구사와 신사 기숙사 학생들이 함께 모인 간친회에서 시작된다. 심미와 차순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람이었고, 이들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이었다. 그러나 차순이 다른 여학생들처럼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는 장난을 치는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심미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낯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 소설에서 남학교 학생들은 며칠 전부터 꾸준히 심미의 방 근처에서 거울장난을 해왔고, 심미는 그들의 장난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차순이 남학생

32 위의 책, 567쪽.

33 위의 책, 554쪽.

들에게 관심을 보인 이후부터, 갑자기 심미도 남학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심미가 관심을 보이는 대상은 다른 남학생들과 달리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덤덤하게 거울 놀이에 열중하던 남학생이다. 이 남학생은 역시 심미의 시각에서 볼 때 다른 남학생과 다르다는 점에서 심미가 선호하는 ‘새로움’의 경향에 맞는 인물이다. 또한 이 남학생의 존재는 심미의 시야를 그녀가 거주하던 구사에서 신사로, 이제는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즉, 심미는 애착 대상을 바꿔나가면서 그녀의 시야와 활동범위를 넓혀나가며 그녀가 지향하는 ‘새로움’을 더 많이 만나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미가 남학생에게 느끼는 애정은 그녀가 선호하는 ‘새로움’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심미는 차순과는 다르게 남학생들이 먼저 걸어들어온 장난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장난들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그녀가 남성들이 여성들을 유혹하고, 여성들은 이 유혹에 반응한다는 전형적인 이성애적 연애구도에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신 그녀는 남학생들 중 여성들을 유혹하지 않는 남학생에게 매력을 느끼며 그를 사모한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사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녀가 먼저 그 남학생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이성애 연애의 성역할과는 다르다. 심미와 차순의 연애관계도 이성애의 모방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다. 연애관계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역동적으로 변한다. 처음에는 차순이 심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시하고 관계를 주도했지만, 관계가 진행될수록 심미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두 사람의 역할은 종종 전환된다. 이 소설은 심미라는 초점인물을 통해 여학생 기숙사에 존재하는 여성들만의 사회와,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성장한 여성이 폐쇄적인 여학교 밖에서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봄」에 나타난 여성들 간의 연대와 친밀한 관계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최정희가 발표한 대표적인 장편소설인 「녹색의 문」, 「끝없는 낭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특히 「끝없는 낭만」은 미군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을 재현하기 때문에 「아기별」에 나타난 어머니의 위상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아기별」이 미군을 양가적인 시선으로 재현하는 양상으로 돌아

가 보자. 윤수의 아버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추종하며 미군으로부터 귀속재산을 불하받고자 했으므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순종적인 인물 군이다. 이 맥락에서 아버지가 껌 등을 매개로 미군을 비하하는 것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성노동을 하고 생계부양자가 되면서 가정 내에서 그의 가부장권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버지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양육권을 잃은 채 이혼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윤수와 윤배는 아버지의 가부장적 지배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인물들이다.

앞서 결론을 유보했던 어머니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자. 미군에게 성노동을 하는 어머니는 가정 내의 가부장제에는 저항적이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에는 순종적인가? 그러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어머니와 같은 여성들에게 기득권을 커녕 오히려 남한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불만을 대리 수용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권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아기별」은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부여된 낙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리지 않는다. 대신 「끝없는 낭만」에서 이 낙인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재현하는 최정희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끝없는 낭만」의 주동인물인 차래는 배곤이라는 남성과 약혼했으나, 그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군인 캐리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배곤은 전사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민족을 좀먹”을 정도로 “타락”³⁴한 사람이라고 차래를 비난한다. 「끝없는 낭만」은 차래가 자살하고 배곤은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장면으로 끝나므로,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부역자라는 낙인에 시달려야했던 최정희가 자신의 사상검증을 위해 국가주의적 메시지를 강조한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³⁵ 그러나 이 소설에서 ‘한국 군인’의 대표를 자임하는 배곤이 차래를 비롯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미군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 가족을 부양한 여성을 “허

34 최정희, 「끝없는 낭만」, 『한국문학전집』 14, 민중서관, 1959. 404쪽.

35 허윤, 「1950년대(年代) 양공주(洋公主) 표상(表象)의 변전(變轉)과 국민(國民) 되기: 최정희(崔貞熙)의 『끝없는 낭만(浪漫)』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78-280쪽.

영”에 가득차서 “민족적인 비운”을 야기한 사람들로 비난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오히려 국가의 무능을 폭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래의 가족을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은 미군의 세탁물을 세탁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의 모습은 한국전쟁기, 그리고 그 직후에 정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미군이 표상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아래에서 미군 경제에 살아가야 했던 남한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한다.³⁶

차래는 미군과 연애결혼한 자신을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과 확실하게 구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이 성노동자들을 자신처럼 미군으로부터 나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지’로 인식하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신세를 비판하며 성노동자인 정순자와 동반 자살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차래와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임금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미군을 고객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모두가 미군의 돈으로 살아간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남한 사람들 누구도 미군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두 여성들을 비난할 자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만들어낸 낙인이 무고한 두 여성들을 자살로 몰아넣었다고 고발한다. 이 소설의 결론은 두 여성들의 죽음이지만, 두 여성들이 서로를 연민하며 그녀들에 대한 부당한 시선에 분노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미군과 성적 관계를 맺는 여성들에게 부여된 낙인이 허구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끝없는 낭만」에 등장하는 두 여성들의 연대를 「봄」에 등장한 여성들의 관계와 겹쳐볼 수 있다. 「봄」에 나타난 심미와 차순의 관계와 심미가 추구하는 ‘새로움’은 「끝없는 낭만」의 자살한 두 여성들이 보여주는 ‘새로움’과 닮았다. 각각의 소설들에 나타난 두 여성은 모두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

36 본고의 초점은 해방기 소설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 발표된 소설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시기 최정희가 창작한 소설들에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독해내려는 손유경(「잔해의 목격」, 『구보연구』 제20호, 구보학회, 2018, 423-446쪽) 등의 연구들이 산출될 만큼 최정희의 비판적 시대인식은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최정희의 한국전쟁 이후의 소설들이 재현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는, 혹은 이 남성성으로 소외된 자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움직임 등은 앞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 관계는 각각의 소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것을 「아기별」의 결론과 겹쳐 읽을 수 있다. 「아기별」의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로 남기로 결심한 것은 가부장제에 포섭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선택으로 읽을 수 있다. 나아가 많은 남한사람들이 미군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던 당시에,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에게만 ‘미군’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낙인을 부여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삶의 방식은 당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낙인을 내면화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아기별」, 「봄」, 「끝없는 낭만」의 여성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구축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질서와 다른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므로, 이들에게서 연합적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을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이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재현된 양상을 젠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R. W.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기득권 권력의 속성을, 주디스 버틀러의 ‘연합적 정치’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는 다른 정치를 추구하려는 이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들을 묶은 소설집 『풍류 잡히는 마을』에 실린 「점례」, 「풍류 잡히는 마을」, 「우물 치는 풍경」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들은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해방기 남한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표상하는 미군과 미군에 결탁한 지주세력, 그리고 이들에 의해 소외된 농민들의 구도를 중심으로 농촌마을에서 나타난 갈등을 그린다. 이 갈등은 농민들과 지주들 간의, 혹은 농민들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지주가 해방기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마을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때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지주의 이러한 방침을 거스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지주에게 맞서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따르지 않는다.

빈곤한 농민들이 행동으로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시화한 행동들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맞선 ‘연합적 정치’를 구성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풍류 잡히는 마을』이 간행된 이후에 발표된 소설인 「아기별」, 「봄」을 분석하였다. 이 두 소설은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과 달리 도시를 배경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인물들의 모호한 관계를 살핀다. 이 소설들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부여한 낙인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질서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두 소설들의 인물들 역시 연합적 정치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기 최정희 소설들의 인물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부여하는 낙인과 배제에 저항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최정희 소설은 냉전 체제 하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식은 그녀의 식민지시기 소설들 및 한국전쟁 이후의 소설세계와 연속선상에 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해방기 소설을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연합적 정치’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여 최정희의 작품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시론 격으로 언급한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이 식민지시기 소설들과의 연속성 및 한국전쟁 이후 발표된 장편소설과의 연속성은 추후 연구에서 더 보완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구명숙·이병순·김진희·엄미옥 편, 『해방기 여성 단편소설』 2, 역락, 2011, 546, 554, 564-565, 567쪽.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어문각, 1949, 16, 18, 23, 47-49, 63-64, 72, 98, 121-122, 129, 138, 221쪽.

_____, 「내가 묘사한 남성」, 『조선일보』, 1950.2.23.

_____, 「끝없는 낭만」, 『한국문학전집』 14, 민중서관, 1959. 404쪽.

단행본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46-65, 104-132쪽.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Second edition), Routledge, 1999, pp.20-22.

R. W. Connell, *Masculinities* (Seco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185-203.

논문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학회』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7-37쪽.

김복순, 「정치적 여성 주체의 탄생과 반미소설의 계보—최정희의 「풍류 잡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9, 310-344쪽.

김양선, 「반공주의의 전략적 수용과 여성문단」, 『어문학』 제101호, 한국어문학회, 2008, 333-357쪽.

김정숙,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과 『녹색의 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변화」, 『비평문학』 제 34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71-92쪽.

김재훈, 「해방 후 양곡유통체계의 재편」, 『사회경제평론』 제26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39-78쪽.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 여성서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76쪽.

박보영,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사회연구』 제6권 1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69-100쪽.

박정미,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 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463쪽.

배석만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 2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 43-91쪽.
- 손유경, 「잔해의 목적」, 『구보연구』 제20호, 구보학회, 2018, 423-446쪽.
- 이병순, 「현실추수와 낭만적 서정의 세계」, 『현대소설연구』 제2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131-150쪽.
- 이혜숙, 「미 군정기 일본인 재산의 처리와 농업 정책」, 『사회와 역사』 제23호, 한국사회사학회, 1990, 260-359쪽.
- 허윤, 「1950년대(年代) 양공주(洋公主) 표상(表象)의 변전(變轉)과 국민(國民) 되기: 최정희(崔貞熙)의 『끝없는 낭만(浪漫)』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57-283쪽.

Abstract

Coalitional Politics beyond Hegemonic Masculinities
: Ch'oe Chŏnghŭi's short stories between 1945 and 1950

Bae, Sangmi

This paper examines the people against the hegemonic masculinity in Ch'oe Chŏnghŭi's short stories between 1945 and 1950. For this purpose, I apply hegemonic masculinities by R. W. Connell and the coalitional politics by Judith Butler to read her stories on a par with her literature in colonial period and post-Korean war. The people who disagree with the hegemonic masculinity do not resist it actively. However, their desire to escape from the masculinity to consist of coalition politics. Therefore, I argue that her narratives realize the new society under the solidarity among ignored and excluded people.

Key words: Ch'oe Chŏnghŭi, Hegemonic masculinity, Coalitional politics, Liberation period, The U.S. military, Cold War

본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